

높은 계란가격을 유지하려면...



이 영 재 한국양계농협 조합장

축산 환경 및 소비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는 과정에서 우리 양계산업 또한 많은 변화를 가지고 현재 **축**의 모습으로 성장, 발전을 하고 있다. 양계산업을 돌이켜보면 육계부문은 육계사육에 따른 판매와 생산의 판매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계열화생산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산란계의 경우는 판매리스크의 진폭이 낮기 때문에 계열화생산방식이 아닌 생산에서 판매를 겸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산란계의 경우 정부에서는 1990년에 들어서면서 전업양축농가의 육성을 통하여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규모화와 전업화로 발전을 하게 되면서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으로 인한 가격진폭의 영향을 받게 되었고, 국민소득이 증대되면서 소비자의 니즈(Needs)변화가 축산물의 안전성과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 환경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그래서 계란의 콜레스테롤의 섭취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계란 소비를 위축시켰고, 또한 언론 매체의 건강을 다루는 프로그램에서 채식을 강조하고 육류의 지방 및 단백질이나 계란의 콜레스테롤의 과잉섭취에 따른 비만과 동맥경화 등등의 경고성 보도로 인체에 치명적으로 건강을 저하시킨다는 언론의 과잉보도에 따라 더욱 계란의 소비가 위축되었다. 그리고 경제의 발달과 사회 환경의 빠른 변화에 따라 여성의 사회활동의 증대, 핵가족화, 학교의 단체급식 등으로 가정에서 음식을 먹는 횟수가 감소하고 외식사업이 활성화되었으며, 세대 교체로 인하여 인스턴트 식품이 보편화되고 학교의 급식활동이 증대되어 가정에서의 계란소비가 감소되었다. 또한, 여러 사람의 음식을 제공하는 단체급식에서 계란을 깨는 불편함 때문에 영양사들의 기피로 인하여 더욱 계란 소비가 감소되고 있으며 그 동안 생산은 증가하였으

나 인구증가율에 비하여 소비는 감소하여 국민일인당 계란소비량은 연간 약 180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이웃나라 일본의 약 350개에 비하여 계란소비량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국내의 계란시장의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으로 계란의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 일년에도 여러 차례 발생되어 생산농가의 경영을 악화시켜 온 것이 10년 동안 반복되어 채란인들을 어렵게 하였다.

또한 몇 년 전부터 양계의 질병이 빈번하게 발생되어 양계산물의 생산성을 저하시켜 양계농가의 경영을 위협하였으며, 지난해 12월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으로 인하여 약 500만수의 조류(닭, 오리)를 살 처분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양계산물의 생산원가에서 사료 값의 점유비율부담이 약 60%에서 약 80%까지 양계산물의 생산원가를 차지하고 있으나 2004년 초부터 사료 값의 상승으로 인하여 양계농가의 경영을 더욱 악화시켜 병아리의 입식능력상실로 인한 닭 사육수수의 감소로 이어지게 되었다. 특히 금년 여름은 10년만에 최고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닭의 폐사와 산란율을 저하시키는 결과까지 초래하면서 현재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계란이 높은 가격으로 형성되고 있다.

우리 양계농민들은 지금의 계란가격을 보면서 만감이 교차할 것으로 생각된다. 계란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한다는 것을 양계인들은 직시할 것이며 그 동안 계란의 수요는 감소하는데 생산은 규모화를 통하여 늘었으며, 1990년도 이전에는 중추업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병아리에서 산란을 하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했는데 10년전부터 현재까지의 양계산업을 보면 계란생산이 너무 쉽게 이루어지면서 생산자 개념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다.

이렇듯 소비환경 및 소비자 요구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생산자의 요구에 맞는 생산시스템을 바탕으로 두고 있었기 때문에 산란계 산업이 10년 정도의 장기불황을 탈피하지 못한 것을 우리 채란인들은 알아할 것이며 국민소득이 향상되면서 소비자의 요구변화는 계란의 안전성과 고품질의 계란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양계농가의 생산 환경 또한 소비자의 요구변화에 맞게 질병예방을 위한 철저한 방역관리와 예방 접종, 동물약품 투여량, 주령, 산란율 등과 일정한 주령까지만 사육하고 노계도태시기를 적절하게 운영하고 1차, 2차, 3차까지 환우를 하는 농가들이 많은데 우리양계농가는 계란가격이 좋을수록 환우시기를 자제하는 농가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 산란농가는 시대흐름에 맞게 소비개념을 충분히 의식하고 철저한 사양관리를 통한 안전한 계란을 생산하는데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모든 산란계농가는 양계협회 등의 양계정보를 이용하여 산란계 닭 마리수를 조절하여 계란의 과잉생산을 미연에 방지하여 공급(생산)과 수요의 균형을 맞추어 계란가격을 유지해야 하며 높은 계란가격일수록 계란의 품질을 높여서 소비자의 만족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양계협회와 가금수급안정위원회의 농정활동을 통한 농림부의 정책을 반영하여 양계자조금활동을 활성화시켜 계란 소비의 홍보를 통한 지속적인 계란 소비를 촉진시켜야 할 것이며, 계란의 공업용 및 식용계란의 수입 등의 문제를 농정활동을 통하여 적절하게 조절하지 않으면 다시 계란가격이 생산원가 이하로 폭락할 수 있으므로 우리 양계농민들의 단결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양계**